



폰테 vs 폰세... PO 끝장승부 격돌

〈폰세+최원태〉



삼성 최원태

에이스 잡기 나서 삼성 최원태 PO 1차전 승리투수로 활약 후 2차전도 7이닝 1실점 기량 뽐내 물오른 투구에 폰세 합성짤 유행

2025 KBO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다.

정규시즌 29경기에서 17승1패, 252탈삼진, 평균자책점 1.89를 남긴 폰세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의 강력한 후보다.

삼성 라이온즈와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에서 선발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1홈런) 1볼넷 8탈삼진 6실점(5자책점)으로 체면을 구겼던 폰세는 이제 팀의 한국시리즈 티켓이 걸린 경기에 다시 출격한다.

폰세는 24일 대전 한화생명 불라크에서 열리는 삼성과 PO 5차전 선발로 나선다.

지난 1차전에서의 폰세는 올 시즌 KBO리그 최고 투수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삼진을 뽑아내는 구위는 여전했으나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가 적지 않게 나왔다. 타선의 힘으로 한화가 1차전에서 9-8로 승리한 덕분에 승리를 챙기긴 했어도 에이스라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칼을 갈고 마운드에 오를 폰세가 5차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단연 김영웅이다.

4차전 연타석 3점 홈런의 주인공인 김영

웅은 이번 PO 4경기에서 타율 0.643(17타수 9안타), 3홈런, 12타점, 3볼넷으로 팀 타선을 이끈다.

폰세가 1차전에서 가장 고전했던 상대도 김영웅이다.

폰세는 0-0으로 맞선 2회 무사 1루에서 김영웅에게 2루타를 맞고 2, 3루 위기에 몰렸고, 이재현에게 선제 2타점 2루타를 허용했다.

또 3회에도 김영웅에게 1타점 적시타를 두들겨 맞았다.

여기에 4회 솔로포를 헌납했던 외야수 김태훈도 폰세가 경계해야 할 상대이며, 피치 클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삼성 주장 구자욱의 대결도 눈길을 끈다.

한화는 5차전에 라이언와 이우스를 포함한 모든 투수를 불펜에 대기시킨다.

폰세가 정규시즌에 '밤 먹듯' 했던 7이닝 무실점 투구를 5차전에도 보여준다면, 한화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무대에 그만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이번 가을야구에 '폰테'라는 별명을 얻은 최원태가 선발 출격한다.

올해 KBO리그에서 폰세라는 이름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작년까지 포스트시즌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최원태가 올해 환골탈태해 계속해서 뛰어난 투구를 이어가자 한 야구팬은 최원태 사진에 폰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합성해 공개했다.

절묘하게 어울리는 이 사진은 큰 화제가 됐고, 삼성 선수단 사이에서도 최원태의

1차전 6이닝 6실점 대망신 폰세 연이은 타점 허용 체면 구졌지만 정규 ERA 1.89... 변함없는 MVP 삼성 불방망이 김영웅 대비해야

별명은 '폰테'가 됐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잘로 폰테를 봤다. 최원태가 (PO 2차전에) 대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 컨디션도 좋다. 5차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원태의 야구 인생은 '2025년 포스트시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정규시즌 27경기 8승7패, 평균자책점 4.92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던 그는 NC 다이너스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 구원 등판했다가 몸에 맞는 공 1개만 내주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절치부심한 최원태는 SSG 랜더스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깜짝 호투를 펼쳐 데뷔 첫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박 감독이 언급한 대로, 한화와 PO 2차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또 역투해 이번 가을 호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다. 최원태가 한화 타선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는 루이스 리베라다.

리베라도는 PO 2차전에서 최원태로부터 1회 1점 홈런을 뽑은 뒤 5회에는 중전 안타를 때렸다.

삼성 역시 5차전에는 대부분의 투수가 대기한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한화 폰세

연합뉴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전설 나달 방한 "세계 정상서도 매일 노력"

'테니스 전설'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자신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한 비결로 '겸손과 열정'을 꼽았다.

나달은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아와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협약식에 참석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2회 우승한 나달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3년 이후 이번이 12년 만이다.

나달은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같은 멋진 나라에 오랜만에 왔다"며 "동양을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기아 후원을 받아 20년 넘게 동행을 이어간 나달은 "오랜 기간 후원해준 기아는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운전면허도 없던 17세 때 손을 내밀어준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수 생활할 때 보여준 꾸준함을 바탕으로 기아라는 그룹에 조언해 달라'는 부탁에 "제가 세계 정상급 기업인 기아에 조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도 겸손과 열정을 키워드로 지목했다. 지난 시즌까지 선수로 뛰고 은퇴한 나달은 "아무리 정상에 있어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일어나며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까지 업적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뤄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능서 만든 원더독스, 실제 창단 불지똥... 김연경 효과 여전

'신인감독'서 사령탑 활약... 시청률 늘며 8구단 생성 기대감

2024-2025시즌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이끌고 선수 생활을 마감한 '배구 여제' 김연경은 은퇴 후에도 프로배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MBC 배구 예능프로그램인 신인감독 김연경

연경에서 '월승 원더독스'라는 신생 배구단 사령탑을 맡아 자신이 은퇴한 후 흥행 카드가 사라진 프로배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19일 방송된 '신인감독 김연경' 4회에선 김연경 감독이 이끈 원



김연경

더독스가 일본 여고부 최강팀 슈지즈고 선수들과 한일전을 펼쳤다.

방송 시청률이 자체 최고 기록인 2.6%를 기록하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김연경이 5월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배구 세계올스타전 'KYK 인비테이셔널 2025'에서 경기 뒤 무대에 올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5.6%까지 치솟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18일 개막한 프로배구도 우려했던 심각한 수준의 관중 급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연경의 은퇴식 열렸던 18일 흥국생명-정관장 간 개막전 때 인천 삼산월드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5800명)에는

만원에 가까운 5401석을 채운 철쭉 응원단으로 분홍 물결을 이뤘다.

김연경이 감독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배구 재미를 알게 됐다는 팬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배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연경 감독이 지휘하는 '원더구단' 원더독스의 인기가 프로배구의 숙원인 '8구단' 창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읽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